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집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3월 8일 (제78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순종의 의미

순종의 사전적 의미는 '순순히 따르다'는 뜻이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에게는 분명히 지·정·의가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의지도 있고 생각도 있다. 그래서 아무생각 없이 무작정 순순히 따를 수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순종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곧 순종이란 의심하지 않는 것, 곧 믿는 것이라고 단정한다. 왜? 믿기 때문에 순순히 따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정말 믿는다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십일조를 드리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분명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일조를 떼먹지 않을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불효자는 없을 것이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못한다'는 말은 입에 달지 않고 살 것이다. 결국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겹다 그러면 하얀 것이라도 검게 믿는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억지를 부리시지도 않지만, 그래도 나는 믿는다. 그것이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야 해도. 왜? 결국 검은 것이 하얗게 될 거니까.

누차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따라갈 수 없다. 그 분은 창조주요, 우리는 그 분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기에 그 분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순종하고 따라갈 때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순종은 믿는 것이다. 믿을 때 순순히 따를 수 있다. 믿음을 측정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라.

생활로 직결되는 지혜의 말씀

2015 JCC아카데미가 개강했다. JCC아카데미의 비전은 분명하다. 이 교회의 미래일 뿐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인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이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각계각층에서 빛을 발하는 인재들로 키워내는 것이다. 오늘날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되며 많은 젊은이들이 일거리 없이 방황하고 있다.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젊은 세대를 향하여 목사님이 처음 제시한 화두는 이것이었다.

"핑계 대지 말고 방법을 찾자!"
실패자는 늘 변명하기 일쑤고 핑계대기 바쁘다.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

고 도전하라. 도전과 모험이 없이는 미래가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독약에나 있다. 지극히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라. 삶이 가난하다고 생각마저 가난해서는 안 된다. 꿈마저 가난할 수 없다. 생각을 바꿔라. 꿈을 키워라. 그래야 미래가 박수를 치며 꽃다발을 들고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목사님은 강의의 절반을 복습에 할애하시며 다시 한 번 꿈을 갖고 부지런히 노력할 것을 촉구하셨다. "향후 30년을 여러분과 함께 뛰며 하나님 말씀을 실생활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약 1:20). 코카콜라병을 흔들어 보세요. 뚜껑을 여는 순간 사방으로 튀어서 나쁜 나라 주위사람들까지 옷을 다 버립니다. 그러나 생수는 아무리 흔들어도 조용하지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마5:5) 했습니다. 살인자 모세가 40년 간 광야에서 혈기를 빼내더니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여(민12:3)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절대 다섯 번 생각할 거 열 번 생각하고, 오리 가자면 십리를 동행하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물이 끓어 넘치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선불리 잡았다가는 손도 데



2015 JCC 아카데미 개강예배(2015. 2. 25, 엘루체 웨딩컨벤션)

는 무덤이 없다던가. 그러나 핑계로는 어떤 활로도 찾을 수 없다. 성공자들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핑계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에 부심한다. 분명 길은 있다는 믿음으로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리게 되어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누누이 강조하시는 것이 게으른 악을 버리고 부지런히 손과 발을 놀리라는 것이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잠10:4).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잠12:24). 곧 '부지런히 머리를 회전시켜라. 상상력의 전원을 끄지 말라. 한계는 스스로 긋는 것이다. 미지의 세계에 호기심을 가지

에 접목하는 지혜를 가르칠 것이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긴다면, 반드시 30년 내에 이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빛을 발하는 인재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올 것을 확신한다."

목사님은 또한 젊은이들이 생각은 이성적이나 행동이 충동적이기에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며, 이 날 강의의 주제로 혈기를 버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잠언 22장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는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으려니와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재앙을 만날 뿐입니다(잠13:20).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혈기를 참지 못하여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창4:8). 성내는 것은

고 그릇도 깨집니다. 수위가 넘었으면 피해야 합니다. 다 흘러갑니다. 상대방 감정을 건드려봐야 다툼만 일어납니다. 혈기를 내서도 안 되고 혈기 내는 자 근처에 가셔도 안 됩니다. 감정에 휘둘러 혈기나 내고, 이웃 다툼에 끼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넘어 참변까지 겪는 시대입니다. 매사 여유를 가지고 오른뺨을 치거든 차라리 왼뺨을 돌려대는 통 큰 마음을 가지 바랍니다. 매사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는 통 큰 자세가 절실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지혜란 생활에 직결되는 지식이다. 말씀을 들었으면 실생활에 적용, 실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멕시코 몬테레이 집회

2015. 3. 10(화) ~ 20(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사58:1~11)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푸는 열쇠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참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영명에서 영생으로 구원받은 것도 복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어 포기할 때 우리에게 는 아직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기도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사58:6). 이것이 금식기도의 위력이니 어찌 우리가 복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곡기를 끊을 만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단데 그것을 외면하겠습니까? 세상의 아버지도 그럴진대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습니까?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에 거쳐 믿음의 선전들은 금식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간절한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모세, 다윗, 느헤미야, 다니엘,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를 마치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느 때에 금식기도를 했을까요? 주 2회 금식을 하던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음을 보고 주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막2:19~20). ‘신랑을 빼앗길 날’은 곧 주님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만 이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금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제가 기약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무는 동안

날의 미국을 세우는 소중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예고 없이 북한 괴뢰군이 쳐들어와 우리는 낙동강까지 밀려가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 때 이승만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급한 상황에 신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유엔군이 참전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이어져 국군이 다시 북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작년 추석날 서울시청광장에서 평화통일 기도 성회를 가진 것이 바로 그런 이유

에서입니다. 이 집회를 위해 우리는 금식



총회장 이초석 목사

식 하 며 기도 했었습니다. 둘째,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도 금식해야 합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오라비인 모르드개를 통해 모든 유대인들이 사흘 금식할 것을 명하고는 자신도 금식에 들어갑니다(에4:15~16).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목줄을 죄던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역전의 드라마가 연출되었습니다.

셋째,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금식해야 합니다. 다윗의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취한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 때 다윗은 금식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삼하12:16). 물론 그 아이는 나단의 예언대로 죽었습니다만, 다윗이 아이가 죽고 바로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음식을 먹은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걱정이 있을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훼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수일동안 울다가 금식하기 시작

했습니다(느1:4).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화하사 적극적으로 돕게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수축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을 때 금식하면 하나님이 만물과 만인을 도와주시니다.

다섯째, 병들었을 때 금식해야 합니다.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굶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시35:13).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도 금식은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공복의 상태에서 몸 안의 노폐물이 연소되고, 백혈구도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히 면역력이 월등

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혈액이 정화되고, 노화방지도 되고, 치매 예방은 물론이고 피부가 매끄럽고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보다 10년에서 20년은 젊어진다고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개들을 보세요. 그것들은 어디가 아프면 한 쪽으로 가서 굶으며 쉽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프면 더 먹고, 거기에다 보약까지 먹어대니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섯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금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니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해 병어리 되고 귀먹은 아이를 데리고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자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지 못했는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중국으로 떠나는 선교사들에게 금식령을 내린 것입니다. 제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

치는 능력을 받은 것은 금식을 밥 먹듯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복대를 매야 할 만큼 금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를 구할 때 금식해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고 나서야 니느웨로 가서 모기 만한 소리로 외칩니다. “사십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욥3:4).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은 왕은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 금식하라고 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흑시 뜻을 돌아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

금식은 인간의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욥3:9)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을 보시고 뜻을 돌아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굶는다고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도 이사야에게 훈계를 받는 장면입니다. 외식적인 금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린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는 동안에는 오락을 삼가고, 남에게 가혹하게 일을 시키지도 말고(사58:3), 싸워서도 안 되며(사58:4), 가난한 이웃을 먹고 입히며, 또 금식기간 중 찾아온 친척을 피하지 않고 대접해야 합니다(사58:7). 또한 조용히 나를 돌아보면서 자복하는 심정으로 금식해야 하고(느9:1~2), 마음을 찢는 애통의 심정으로(욥2:12~13),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 없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마6:18).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네 빛이 아침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사58:8~9).

이처럼 금식기도는 흉악의 사슬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가 당신 손에 있는데 왜 걱정하고 포기하십니까?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

에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침략과 압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고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나 그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뢰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히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갈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쳤습니다(삼상7:3~12).

남북전쟁이 절정인 시점인 1863년 4월 30일, 링컨 대통령은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미국인들에게 기도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미국인들은 하루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것이 남북전쟁을 종식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오늘

부족한 제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 저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장로교회에 나갔습니다. 그해는 고춧가루 파동으로 양념값이 비쌀 때입니다. 어머니는 교회 식사 당번이어서 반찬을 준비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아마 반찬값 때문에 목사님은 어머니를 오해해서 어머니와 형에게 연사가 좋지 않았나 봅니다. 그일로 어머니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 때가 정월 초인테 마침 조장을 만나 이런 교회가 있으니 한 번 가보지 않겠느냐 하시며 인천예수중심교회를 소개해서 어머니는 금요집회부터 참석하기 시작했고, 3주째는 저한테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목사님이다. 목사님 손에서 예수의 피가 나와.” 하시면서 저에게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몰랐습니다. 그냥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목사님 설교제목은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였습니다. 공감이가고 이해도 되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도 3주째 계속 은혜를 받아 눈물 흘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일 낮 예배에 갔습니다. 통성기도 시간에 내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며, 내 혀는 방언을 말하며, 내 귀는 세미하고 다정하고 인자하고 자비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손들고 나오라, 손들고 나오라.” 내 입은 나도 모르게 사랑의 종이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바로 청년부실로 가서 봉사할 것 있냐고 물으니 청년들 예배 후에 차량을 운행해달라고 해서 열심히 차량운행을 했습니다. 그 때 노강식 전도사님과 김종오 전도사님이 청년부 담당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김종오 전도사님이 사모님을 뵈러 가자는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사모님이 저에게 목사님 차를 운전해보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 번도 뒷사람을 모셔보지 못하고, 서울지리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는 어린 나귀 같은 저를 쓰셨습니다. 목사님의 이해와 배려 속에 목사님의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차에 타시면 모자란 잠을 청하든지 방언기도를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집회에 나갔을 때에 저는 한숨자고 일어났는데 새벽시간인데도 방언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방을 열어보았더니 누워서 방언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금식을 하셨습니다. 또 금식을 밥 먹듯 하셨습니다. 단에 오르실 때면 복대를 두르고, 링거주사를 맞고 오르셨습니다. 몸 상태는 금식하면 안 되는데, 그 때 목사님은 3년만 하나님 뜻대로 묵회하시다가 하나님께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고 하셨는데, 어떤 번역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나

옵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의 능력의 근원은 금식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목사님! 목사님은 사람들과 대화하실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알아보시는 것도 그렇고 올림픽공원에 들어가실 때에도 그렇습니다. 또 집회 때마다 귀신 쫓고 각색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포교회 전도사 시절 폐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하루는 총회장 목사님께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국내도 아니고 미국 시카고 집회 가셨는데, 누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나의 상태를 알고 귀신 쫓고 기도해주시는 것입니다. ‘아! 이 까마득한 전도사를 챙기시는 우리 총회장 목사님!’, 이것은 총회장 목사님 속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어찌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양을 누구보다 사랑하신 목사님, 성도들이 잘 됐다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로 잠을 못 이루시며 밤새워 기도하시는 목사님. 성도들이 어려움 당했다 하면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시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목사님. 이는 목사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목사님 때

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또 귀한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도 목사님 덕분에 복을 받았습니다. 또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 것도 목사님 덕분입니다. (저 같은 것을 우리 집사람이 따라왔겠습니까? 목사님 곁에 있었다면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통해 받은 복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자꾸 주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글재주가 없어서 이 글을 쓰려하지 않았으나 이상 중에 목사님이 수박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화물차를 보았더니 짐 밑에 수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쓰지 않으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나에게 등을 돌려 누워서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쓰지 않으려고 했더니 내 여동생이 꿈에 나에게 ‘개새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게 된 것입니다. 총회장 목사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총회장 목사님의 은혜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밤새 내내 쓰고 써도 다 기록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주예수중심교회 박일태 목사



1968년쯤 인걸로 기억됩니다. 제가 초등학교생이었던 그해에 할머니는 천을 덧대어 만든 속옷 파자마 주머니 속에서 밤들만한 눈깔사탕을 꺼내주면서 “아가, 꼭 예배당 가야한다”며 어린 저희들을 전도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시던 사탕이 어찌 그리 맛있고 달콤하던지 “예. 할머니” 하고선 눈깔사탕을 받아먹곤 했지요. 그 당시에 독실한 불교신자인 어머니는 예수 믿는 할머니를 무척이나 싫어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주님을 영접하시고 신실한 일꾼이 되신 것은 할머니께서 시골의 작은 예배당 새벽기도 종을 치시면서 후손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다 천국가신 지 10년쯤 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3대째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한남동의 작은 교회를 섬기셨던 어머니께서 1994년부터 친정집에 갈 때마다 늘 기다렸다는 듯이 비디오테이프를 꺼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내 비디오에 넣은 후 “애, 이런 목사님도 계시더라. 이것 좀 봐라.” 하시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PR 하신 것은 이초석 목사님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초석 목사님과 저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무척이나 날카로운 이미지에 아이보리 양복과 백구두는 매치가 되지 않아 웬지 어색하게만 느껴졌고 외적인 모습은 제가 흠모하는 목자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목사님께도 느껴 보지 못한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느 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함과 주님 외엔 그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담대함의 거침없는 설교패턴과 강력함에 흡입되어 빨려 들어갔고, 불을 뿜어내는 듯 뜨거운 열정이 화면을 통해서 그대로 내 영혼에 부어지는 듯했습니다. ‘아~ 저분을 좀 보고 싶다.’로 시작하게 된 저의 신앙생활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행복이었습니다. 늘 저를 짓누르고 있는 우울한 기질과 모든 질병을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 고침 받았고, ‘저런 분이라면 따라가도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 즈음에 “너는 내 것이다”(사43:1)는 주님의 음성을 들

고 신학교에 입학했고, 지금까지 잘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은 강단 위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과 강단 아래서 목사님의 일관된 삶의 일치성 때문이었습니다. 초지일관 흔들림 없는 주님을 향한 충성심과 영혼을 위해 쏟아 붓는 진한 사랑은 의심이 많고 지나치게 소심한 저를 감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삶을 지켜보면서 기도를 배웠고 상급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커졌습니다. “예수 외엔 정복자가 없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천문천답(千問千答)이 예수”라고 외치며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몸소 행하심으로 가르쳐 주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때론 아버지처럼 무섭고 엄격한 사랑으로, 때론 어머니처럼 따스하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목사님! 앞으로 30년!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길로 앞서 가옵소서! 그길 끝에서 주님을 뵈을 때까지 잘 따라가겠습니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귀를 기울이세요

얼마 전 한 케이블 방송에, 어린 시절부터 가요계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성공한 프로듀서가 된 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살면서 돈도 없고 그나마 있는 거라곤 컴퓨터밖에 없었던 그는 열심히 음악에 몰두하였고, 마침내 지금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넓은 집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그의 집 안 드레스 룸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차 키들과 수백 컬러의 고급 운동화, 백화점 명품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멋지게 진열된 명품 시계들과 5만 원 권 문치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신의 집에 있는 돈다발과 명품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리는 것을 취미로 즐긴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가 스스로 맘 흘러 노력해서 번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행동에 거리낄 것 없이 당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인터넷에는 그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고, 언론과 대중은 그의 집 자랑, 돈 자랑, 인생 자랑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 인생의 업적을 자랑하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최고 가문과 학벌, 지위를 가지고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6:14). 지금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민낯 신앙

5년 전, 호주의 한 여성이 임신 27주 만에 쌍둥이를 조산하고 한 아이의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다. 믿을 수 없는 슬픔 속에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녀가 젖가슴 위에 아기를 올려놓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몇 분 뒤, 기적적으로 아기의 호흡이 돌아왔다. 이후 엄마와 신생아가 맨 살로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일명 ‘캥거루 케어’가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신생아 케어법으로 떠올랐으며,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캥거루 케어’가 신생아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패혈증을 40%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졌다. 이러한 ‘캥거루 케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의 근원인 엄마의 품에 맨 살로 안겼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도 썩 닮았다. 지금의 시리아이자 성경 속 이람 국의 구국 공신인 나아만 장군은 왕과 백성에게 인정받는 그야말로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한센 병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의 환호와 칭송을 듣고도 집에서는 갑옷을 벗고 살이 썩어 흐르는 고름을 닦아야 하는 신세였던 것이다. 더구나 당시 한센 병은 죄의 대가로 걸린 병이라 하여 돌로 쳐서 죽이거나 멀리 격

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 그의 괴로움은 참으로 절망적이었다. 그런 그에게 아내의 계집종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했다. 하지만 너무나 간절한 그였기에 왕에게 자신의 상황을 고했고 그를 신뢰한 왕은 기꺼이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서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기까지 한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장군다운 모습으로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아간다. 말들과 병거, 종들을 거느리고 갑옷을 위엄 있게 차려 입은 채로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맨 살을 원하셨다. 엘리사는 자신의 상상과 달리 두 팔 벌려 환영하지도 않았고 그럴듯한 안수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문 앞으로 종을 보내어 더러운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고 할 뿐이었다. 왕이 부탁의 편지를 써줄 만큼 인정받는 능력도, 엄청난 말과 병거를 거느린 위세도, 근엄해 보이는 갑옷으로 꾸민 육체도 모두 내려놓아야 가능한 요구였던 것이다. 이는 잘 화장된 겉모습이 아닌 지질 대로 지치고 상할 대로 상한 그 심령 그대로를 드러내야 비로소 하나님의 본체와 맞닿아 하나님

이 직접 위로하실 수 있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나아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하나님의 기적을 맞본다. 상상컨대 그가 종들 앞에서 하나, 둘 갑옷을 벗고 고름 가득한 자신의 몸뚱이를 드러내며 더러운 요단강에 7번씩이나 몸을 씻을 동안 온 몸과 마음으로 울었으리라. 하지만 그 덕분에 그는 맨 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병 고침을 받자마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절절히 고백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민낯을 원하신다. 연연인 들처럼 자신감이 넘쳐 자랑하고픈 민낯이 아닌 슬픔, 고통, 죄성을 오롯이 드러낸 우리의 참모습 말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만 큼은 온전히 벗겨진 진실된 모습으로 서자!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맞닿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샘솟고 온전한 평안 속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51:17).

하인명
renming@daum.net

Good News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속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는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한 후에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주

는 대로 믿고 먹습니다. 그것을 먹고 난후에 병의 증세가 호전되는 것을 보고 그 약의 효능을 실감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공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는 엄연히 산소와 수소, 이산화탄소가 섞여서 존재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타고 왜군들과 싸우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역사책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천국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으며, 2000여 년 전 우리 죄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죄 사람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요 14:6).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영혼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느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나도 건강할 수 있다::

한의학,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한참 드라마 <허준>이 유행하던 당시 한 의학과에 들어갔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 앞길에 그냥 순탄한 대로만 있을 것 같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강박증에 난독증까지 있던 나는 시험 때마다 집중을 못 해 거의 시험 5분전에 전공책이 아닌 성경책을 볼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그러한 강박증도 없었다면 과연 내가 성경책을 그 만큼이라도 읽었을까 싶은 생각은 든다.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나에게 한의학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유명한 강의를 쫓아다니며 듣고 또 들어도 그 그림자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학문이었다. 그러다보니 한의사가 된 것에 감사하기 보다는 의대 안간 것을 후회하고 ‘기회만 되면 다시 의대 들어가야지’라는 생각만 하게 되었다. 그런 심정인지라 한의학은 버리고, 뇌파 및 바이오피드백, 운동치료, 음악치료, 상담치료에 집중해 학습장에, 우울증, 발달

장애, 정신질환 전문 두뇌클리닉을 운영하였고, 국내에서는 나를 좋은 치료효과를 내는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면서도 집사람의 질환으로 국내 유명한 한의원은 다 찾아가 그 원장님의 치료법을 배우며 의도치 않게 한의학의 다양한 학문들을 접하게 되었다. 그렇게 5년 이상을 해마다가 작년 이맘쯤, 자폐증에 한의학 이론 ‘상한론’을 적용해 치료를 했을 때 유호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뜻 깊고 신기하고 감사했다. 반면 효과가 미진한 아이들은 왜 그런지 고민이 되고 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이후 사상의학으로 체질의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같은 음식이더라도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약이라도 어느 자폐증 아이에게는 도움이 되고 다른 아이에게는 효과가 없음을 알게 되었

다. 목사님 말씀대로 누구는 타고나길 분노가 쉽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분노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올해는 거의 20년 만에 한의학이 조금씩 보일 수 있는 눈이 열렸다고 스승님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그 눈을 주지 않으신다는 스승님의 말씀에 또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제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한의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나님께서는 때와 기한이 이를 때에 그분의 뜻과 일들을 성취하고 역사하신다. 2015년에 나와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귀한 일들 그리고 좋은 일들이 많은 한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충만하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무엇을 보는가?

1867년! 미국은 한반도의 7배나 되는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은 쓸모없는 땅을 비싼 값에 잘 팔았다고 상여금까지 톡톡히 챙긴 반면 미국 상원은 난리가 났습니다. 매매 계약을 성사시킨 윌리엄 시 워드 국무장관을 향해 “쓸모없는 얼음땅을 720만달러나 주고 사다니 국고를 탕진한 책임을 져라”라며 비난을 퍼부었고, 심지어 알래스카는 “시 워드의 아이스박스”라는 놀림감이 되었으며, 실패의 거래를 뜻하는 말로 “시 워드의 어리석음”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890년 북부에서 막대한 금맥이 발견되며, 황금 땅으로 떠올랐고, 1968년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되면서 비로소 모든 사람들은 시 워드를 “꿈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알래스카는 미국의 보물이 되었고, 시 워드는 미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빨리 가고 싶거든 뛰어라. 그러나 멀리 가려거든 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급하여 목전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멀리보고 크게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알래스카가 미국의 보물이 된 것은 눈앞에 이익만을 따지면서 치열한 반대를 하던 미국의회와 러시아가 보지 못했던 것을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시 워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왜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 11:1)가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보이는 것과 보고 싶은 것 중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말세에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